

광주시, 민·관 ‘일상적 협치’로 민주주의 구현한다

민관협치협의회, 올 첫 회의
공동 프로젝트 운영 큰 성과
2차 기본계획...5대과제 추진
오는 4월 제3기 협의회 출범

광주지역 민·관이 ‘일상의 협치로 민주주의의 광주 구현’에 나선다.

지난 3년간(제1차 기본계획) 지속가능한 광주공동체 조성에 노력했다면, 앞으로 3년(제2차 기본계획)은 ‘일상적 소통이 있는 협치로 민주주의의 광주’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어 2024년 운영 성과와 제2차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2025년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광주시와 시민사회의 협력·소통 창구로 민관이 협력해 지역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사업 수립 및 실행하고자 구성된 민관협의체다. 광주시, 시의회, 시민·직능단체, 일반 시민 등 15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의장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 등 40여명이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 회의에서 민관협치 활성화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석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먼저 ‘2024년 운영 성과’와 ‘제2차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성과로 ‘발굴된 의제가 정책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민관협치 공동프로젝트’를 꼽았다.

협의회는 발굴된 15개 정책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이 중 5개를 선정해 정책화·사

업화하는데 성공했다. 대표적으로 청년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광주 3일 살기 프로젝트’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JOB 페스티벌’이다.

민관협치 공동프로젝트는 올해에도 지속 추진된다. 오는 6월까지 각 분과위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7월 워크숍을 열어 협치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총 59차례 분과위원회를 열어 38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분과위 중

안전도시교통분과는 ‘우회전 잠깐 멈춤 캠페인’을, 여성분과는 ‘밤시간 안전한 도시 캠페인’을 진행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제2차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공유했다.

제2차 기본계획(2025~2027년)은 ‘일상적 소통이 있는 협치로 민주주의의 광주 구현’을 비전으로 5대 핵심과제,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5대 핵심과제는 △협치제도 개선과 민

관협치협의회 강화 △민관협치 의제 발굴과 실천 △광주협치 역량강화 △광주협치 플랫폼 활성화 △광주민관협치모델 브랜드화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협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9개 분과위원회를 11개로 세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분과위원회는 민주인권이주민이 민주인권과 이주민으로, 사회적경제노동이 사회적경제와 노동으로 분리돼 총 11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는 민과 관이 만나는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중심체이다”며 “민관 공동프로젝트 등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날이 진화하는 민관협치협의회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일 이사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제2기 협의회 위원 모두 수고했다”며 “협의회에 힘을 실어주고 실질적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과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광주시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8명과 공무원 5명을 선발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 올해 지방공무원 210명 선발

상반기 195명·하반기 15명 채용

광주시는 2025년도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210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 선발인원 105명보다 2배 증가했다. 광주시는 2025 광주 세계(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 준비,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조성,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준공 및 2단계 공사 본격 시행 등 각종 정책 수요를 반영해 채용 규모를 결정했다.

채용시험은 2회에 걸쳐 치러진다. 상반기에 9급, 연구사 등 19개 직렬 195명, 하반기에는 7급, 연구·지도사 등 6개 직렬 1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101명 △기술직군 93명 △연구·지도직 16명이며, 직급별로 △7급 10명 △9급 184명 △연구사 15명 △지도사 1명이다.

직렬별 채용인원은 △행정 62명(일반 47, 장애인 6, 저소득층 3, 지방의회 6) △세무 8명 △전산 10명(일반 9, 장애인

1) △사회복지 11명(일반 10, 저소득층 1) △사서 10명(일반 9, 장애인 1) △공업 18명 △농업 4명 △녹지 2명 △수의 7명 △식품위생 1명 △의료기술 2명 △환경 5명 △시설 35명(일반 34, 저소득층 1) △방재안전 6명 △방송통신 1명 △시설관리 5명 △운전 4명 △연구직 15명 △지도직 1명 △고졸 구분 3명이다.

광주시는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와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8명, 저소득층 5명, 기술계 고졸자 3명을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구분해 선발키로 했다.

응시원서는 9급 등 상반기 시험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7급 등 하반기 시험은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상반기 6월21일, 하반기 11월1일에 전국 동시 시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8월과 12월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시험인사정보’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보급

올해 44억 투입 800대 보급

전남도는 e-모빌리티산업 육성 일환으로 올해 44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총 800대를 지원한다.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는 농작물·농자재 등의 운반과 작물 재배 또는 관리를 위한 이동 수단 등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차량으로 지난 2020년부터 전남도 자체적으로 꾸준히 보급하고 있다.

1대당 가격은 550만원으로, 전남도는 기종별 안전성,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최소 350만원부터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여성·고령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 이후 시군에서 선정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기계 안전 교육 이수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e-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함께 고령·여성농업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소형 전기운반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안전교육 이수와 농기계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해양수산분야 전주기 맞춤형 육성

창업·신시장 확보 등 지원

전남도는 올해 17억원을 들여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와 해양수산 관련 기업의 신규 창업 지원, 제품 개발, 신시장 확보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수혜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도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해양수산 스타트업 발굴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창업 실무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 총 5개 기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12개 항목 최대 3천만원 보장

광주시는 올해도 광주청년들이 국방의 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면 누구나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이나 다른지역 전출 때 해지된다. 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

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질병·상해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별 가입된 각종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해 수술비 등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12개 항목으로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애 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군복무중 중증장

참여를 바라는 기업이나 예비창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전남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방문,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우편이나, 이메일(jmbic1726@naver.com)을 통해 할 수 있다.

강석은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창업기업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농기원, 딸기 수출 활성화 맞춤형 지원

매월 2회 이상 종합컨설팅

전남농업기술원이 전남산 프리미엄 딸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 18일 강진군과 공동으로 수출딸기 연구회 회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강진 수출딸기 통합조직과

협력해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

딸기는 온도와 습도 등 하우스 내의 환경에 매우 민감해 재배가 까다로운 품목이다. 최근에는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금실’ 품종으로의 변화와 수경 재배법 도입으로 환경관리 및 영양공급 등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은 딸기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2회 이상 종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첫 번째 컨설팅에는 딸기 전문가인 (전)전북농업기술원 박정호 기술사가 참여해 딸기 생육 데이터 분석 및 처방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노병하 기자

오지현 기자